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 공덕동의 미확인 표식들>

황귀영 개인전

아티스트 토크 녹취록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일시 : 2018년 4월 21일 (토) 오후 4:00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김인선 :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황귀영 작가의 개인전을 맞아 아티스트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팟캐스트를 녹음했어요. 들으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트톡 윌링앤딜링'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https://soundcloud.com/arttalkwillingdealing>)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황귀영 작가의 대화를 팟캐스트로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귀영 작가가 이전에 했던 작업부터 지금 전시하는 작업까지 작업세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예요. 여러 영상작업과 설치했던 작업을 소개해 주실 거고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니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황귀영 작가는 서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칼아츠(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미술과 석사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에 온지는 6년 정도 됐고 이번에 첫 개인전을 열게 됐습니다. 전시를 소개하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니 개념 자체도 재밌고 다루는 방식도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개인적인 입장을 잘 다루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들어주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황귀영 :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작업은 현재 전시하고 있는 <협상 불가능한 관계들: 공덕동의 미확인 표식들> 작품이 주가 되고요. 중간에 본 프로젝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업, 그리고 제 작업은 아니지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작가의 작업도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작업을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고 각기 다른 연결 고리들로 이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지점, 고민 또한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엉뚱하지만 제 작업이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업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영상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콜린 스미스(Cauleen Smith) 작가의 작업인데요. 지금 저기 보면 간판 같은 경우에는 한자가 쓰여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군악대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흑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서 대부분의 참여자는 흑인 학생이며 어느 차이나타운에서 군악대 행진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은 썬 라(Sun Ra)라는 유명한 흑인 재즈 뮤지션의 음악인데, 연주하면서 차이나타운을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차이나타운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중국 출신의 사람들이 많은 차이나타운에서 흑인 재

즈 음악가를 기리는 음악을 틀어야 하는지 의문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현대미술이 어떤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 무언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마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어떤 문화적 차이, 강요,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번엔 다른 작가의 경우인데요. 이것을 진행한 작가는 토마스 허쉬혼(Thomas Hirschhorn)입니다. 보이는 작업은 <그람시 기념비(Gramsci Monument)>라는 작업인데요. 작가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던 스피노자, 맑스, 그람시 등 여러 작가, 사상가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기념적인 기둥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그 사상가에 대한 워크숍이나 강연을 하고 자유 토론을 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기념비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장소는 사우스 브롱스(South Bronx)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뉴욕 근처에서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이 작가는 유럽 출신, 백인 남성 작가이고 제가 예전에 이 작업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곳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의 이(스미스의) 작업을 보고 같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다 특정한 커뮤니티에 미술이라는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곧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침투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디아파운데이션(Dia Foundation)이라는 크고 유명한 미술 재단에서 후원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가가 디렉터로 활동하고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사회에서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연결해서 제가 사는 한국에서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화마을 벽화사건’을 보면 이 지역에 환경미화로서 공공미술이 들어오고 저 계단에 꽃이나 잉어 같은 걸 그렸었는데, 그것이 크게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상권이 좋아져서 그것을 반기는 사람들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았어요. 너무 시끄러워졌고 자기 삶이 감시당하는 것 같으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민 중 일부가 벽화를 지워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술이라는 게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항의하는 낙서가 등장하기도 했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현대미술 작가가 어떤 지역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때, 그 작가의 위치와 행위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볼 수 없다는 쪽에 무게를 더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산 83을 소유하는 세 가지 방법>은요. 예전에 했던 작업입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옆이 산이 있었어요. 지도상에는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거기서 울타리를 치고 자기가 길러서 먹고 싶은 농작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산림을 훼손한다고 생각해서 경고문을 붙여놓고 농작물 사이 사이에 소나무를 심어 두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소나무를 피해서 다시 배추 같은 농작물을 심어서 먹었어요. 이처럼 꾸준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고문이 더

커지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 상황을 관찰하는 일지를 썼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서 보면 이 지역은 사실 다 공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쪼개어져 있는지 그려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짜에 어떤 시기에 구청에서 단속하는지를 기록으로 남긴 것인데 '단속일지'를 쓰고, 세로로 세 가지 패널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패널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기록하는 문서이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단속을 피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울타리를 만들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어떤 작물을 몇 월에 길러서 수확해서 먹었는지, 울타리의 스타일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기록해서 '농작일지'라는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해볼까 생각하다가 빈 땅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울타리를 만드는 방식을 기록했던 것 중 일부입니다. 돌담을 쌓기도 하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저런 방식으로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걸 빈 땅을 찾아서 정원을 만든 것이었는데요. 뭘 기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농작물이 아니라 정원을 가꾸어 봐야겠다 생각하고, 정원수를 심고 그 당시에 있던 '경고 현수막'(여기서 무언가를 농작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을 모아서 울타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것이 여전히 경고의 기능을 가지면서도 제 울타리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다른 부지를 찾은 거예요. 이번에는 울타리를 따로 만든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당시 14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MINE'이라고 쓰면 제 방에서는 '나의 것'이라고 보이지만 3층 정도에서 보면 글씨가 안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냥 예쁜 꽃밭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관점과 시점의 차이가 각 사람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텍스트화한 정원을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일지 중의 일부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이 정원의 위치가 누가 훔쳐가기 좋다"고 하시면서 다른 부지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쁜 꽃을 같이 보면 좋지 않겠느냐고 답변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이게 개인 정원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공원으로 대답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산이 있는 지역이 산을 기준으로 왼쪽은 저희 아파트지만 오른쪽은 판자촌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쪽에서도 와서 농작물을 심어 먹는 분도 있었는데 그중 한 아저씨는 제가 하는 게 부르주아 같다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게 정당한 비판 같기도 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행위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저랑 비슷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김인선 : 구청에서는 그 정원을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황귀영 : 만들다가 구청 직원분들과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위반하는 일이라 생각해서 겁먹었는데 정원이라고 했더니 의외로 문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비흔적을 표시하기>는 제가 미국에서 한 작업 중에 하난데요. 로스 엔젤레스로 유학을 갔는데, 당시에 그래피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피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기 화면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VK라고 쓰여 있는 건 태깅(tagging)이라고 하는데 집단

이나 개인의 정체성을 이니셜이나 기호로 공공장소에 남기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기호의 배후에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일지, 또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했어요. 낙서하다가 잡힌 학생이나 지우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랬는데요. 청소년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남기는 행위도 있었고, 어떤 폭력 조직 같은 데서 영역 표시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계속 지우는 분도 있었어요. 지운 표시 또한 많이 보였는데 관찰하면서 저도 어떤 식으로 개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것은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똑같은 사각형이 두 개 있는데 왼쪽은 그래피티 지우는 분들이 남긴 흔적이고, 저는 그걸 똑같이 따라 그린 거예요. 똑같은 흔적이 두 개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걸 보여드리고 지우시는 분들에게 여쭙봤더니, 이런 게 한 개면 그냥 지운 흔적이 될 수 있는데 반복이 되면 낙서로 인식이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복에 의해 어떤 기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뀔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귀하의 노동의 흔적이 될 수도 있을까 물어보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1년 후에 그 장소에 찾아가서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인식했는지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에요. 왼쪽에 보면 그대로 있고 오른쪽엔 그걸 다른 표지판으로 막아놓기도 했어요. 그것을 다른 상황에서 시도해 본 경험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개인전을 했었을 때이고 왼쪽에 보시면 유사한 이미지가 있어요. 한쪽은 건물 관리인이 그래피티가 생겨서 지웠는데 페인트가 조금 모자라서 그래피티 필체 그대로 지운 거예요. 이게 모호한 흔적 같다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따라 그렸어요.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서예 같은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건물의 주인께서 전시가 끝날 때쯤에 낙서가 있으니 지우라고 했어요. 갤러리 디렉터, 저, 건물주가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건물주의 의견에 따라 다시 지우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하시는 분과 함께 색을 조색해서 그 위에 다시 칠함으로써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음 작업 <집 안에 머무는 대자보>은 제가 한국에서 했던 작업인데요. ‘안녕들하십니까’가 화제가 되었을 때,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길거리에는 어떤 표식이 많이 등장하고 지워지고 훼손되는지 관심을 두고 보게 되었어요. 당시 등장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중에 타인에 의해서 뜯어진 대자보를 주의 깊게 봤어요. 경찰이나 관공서에서 뜯었다기보다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뜯어진 상태가 온라인에 떠돈다거나 그런 것의 이미지를 모았어요. 사회적 이슈나 공론장에 드러난 목소리가 어떤 것이 거리에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루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중 서너 가지 포스터를 선택한 후에 제 몸에 부착했을 때, 제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실험해보고자 했어요. 그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경험이 작업으로 남아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대자보와 제가 속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속성을 함께 생각해보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어떤 현상을 관찰하거나 다루고, 혹은 참여하는 사람의 위치와 그 사람의 관계 등을 보고자 했습니다. 제가 여자이고, 딸과 부모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작업을 했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고, 최근에 ‘미투(Me Too)’나 ‘위드유(With You)’ 운동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고통 속에 배워가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에 공감하고 참여하려고 할 때, 본인의 위치를 가만히 둔 채 사고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점

이 제가 삶의 이슈와 작가로서 바라보는 거리, 위치, 관계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입니다.

김인선 : 저 대자보가 어떤 대자보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황귀영 : 이 대자보는 당시에 성 노동을 하는 여성분께서 성매매하러 오셨던 손님과 ‘안녕 들하십니까’ 문제를 놓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는데 손님이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폭행을 당한 사람으로서 “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것이 저의 몸에 붙는 순간 가족에게는 그것이 저와 동일시 된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는 무게와 제가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실천의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관객 : 많은 대자보 중에서 다른 대자보를 가지고 작업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황귀영 : 있긴 했는데 저한테 그다지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관객 : 대자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일까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황귀영 : 당시에는 이것이 우리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한계가 있기에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이번 전시에 관련해서 했던 작업의 문맥과 여러 가지 정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작업에서 이미 소개가 됐듯이 저는 현재 공덕동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봤던 표식을 같이 보여드리면 “사업시행 인가를 축하드립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세요” 등의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재건축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에 저런 현수막이 공공장소에 걸려있고 보는 사람에게 어떤 신호를 보낸다고 했을 때 저는 적합한 수신자는 아니었던 거죠. 저희 집 앞의 모습인데, 조합원들이 모임을 하는 곳이 근처이다보니 유독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념사진을 한번 찍어본 것인데 사진 속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와는 상관은 없는데 계속 보게 되는 상황을 담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임 때마다 각종 건설사에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환 같은 것을 보냈는데 저렇게 건설사 이름, 축하의 메시지, 모임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화려한 경우도 있고, 화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자아내는 축제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저와는 상관이 없기에 별생각 없이 지나쳤던 거죠. 그와 동시에 동네의 다른 벽을 보면 재건축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벽보 같은 게 많이 붙어있었어요. 사진의 오른쪽에는 찬성하는 쪽이고 왼쪽은 반대하는 분들이에요. 나란히 벽보가 붙어있는 일도 있었고, 왼쪽에 보시면 한쪽의 벽보를 칼로 그어놓은 건데 갈등이 짐작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전시장 전면 벽에 옮겨 놓은 낙서입니다. 실제로 이주가 시작되면 이러한 갈등이 더 고조된 상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저런 낙서가 등장합니다. 강렬한 낙서를 보는데 이 중 일부는 제가 수신자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신자와 발신자가 누구인지 생각했을 때 저는 어

디딤인지 위치가 궁금했고, 이렇게 지도화하면서 그려본 작업이 <네트워크를 지도 그리기>입니다. 부동산, 집주인, 세입자 세 명의 관계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저희 집주인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여러 관계가 있고 저는 그런 관계가 없기에 섬처럼 동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저 말고도 재개발이 결정되었을 때 무관심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위치가 있고, 또 그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저기 지도에 있는 삼성생명 같은 것은 영똥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집주인 어떤 할머니께서 당시는 재개발을 원치 않는 데 진행이 되는 것을 보니 답답한 마음에 이 사업에 자금을 대는 기업이 어딘가 수소문하고 그곳이 삼성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책임 소재가 나누어져 있어서 찾아간다고 해서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죠. 밑에 금융감독원 같은 곳도 찾아가셨지만,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이주비를 받고 다시 집을 얻어야 하는데 서울에 얻기가 어려우니 지리산으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구두 대화를 통해서 들은 것은 노란색으로 관계를 확산시켜 봤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초연했던 이유가 관계가 없도록 구조 속에서 위치 지어졌기 때문인 거 같아요. 지리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사실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집주인보다 상황에는 개입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막했기도 했고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미학인 표식들1>은 지난해 여름에 처음 걸었던 현수막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저희 집 앞에 걸어놓았어요. 저 현수막을 만들 때 제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씨의 폰트나 색도 일반적인 현수막과 달리 애매하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게 청약통장을 선물해주신 적이 있어요. 만약 청약이 당첨되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속상해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미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공동체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정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웃을 피하는 일도 있어요. 저의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편한 얘기를 듣게 되면 차라리 이웃이 서로 모르고 지내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5년째 거리를 유지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집주인이랑 겪었던 일인데, 재건축이 진행되면 저 같은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게 돼요. 내가 원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물어봤을 때 집주인이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겪었고, 저 역시도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만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저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문장을 현수막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옆 동네는 저희 동네보다 재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이주가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억울한 사연을 저희 동네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저에게 섭섭함을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상황이 종료된 상황에서 본인

에게 물어보는 게 불편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자신이 놓인 갈등의 상황이 끝났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일종의 예방책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섭섭하게 느껴서 현수막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처럼 관찰자적 시선으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수개월째 달고 있는 현수막이에요. 도대체 누가 이걸 누가 보고 있기는 한 것인지 반응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한번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보라고 만들어본 것도 있어요. 많은 분이 실제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저한테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구조예요.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같은 건물에 사는 분이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어본 경우, 혹은 전세계약이 끝난 상태라서 부동산 담당자와 새로운 입주예정자가 집을 보러 왔을 때 현수막이 무엇인지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 담당자분은 민망하셨는지 “저분이 재개발 전문가세요”하면서 넘어간 적도 있고요.

<미확인 표식들2>에서는 수신자에게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진행한 작품입니다. 제가 흔히 봤던 화환의 형식을 보면서 화환이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환은 보통 건설사가 조합에게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어떤 개인에게 화환을 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고민해봤습니다. 화환의 형식을 적용해서 꽃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꽃바구니를 보내기 전에 작업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실제로 아는 분들에게 보냈어요. 과일을 사먹기 어렵다하는 분에게 과일 바구니를 보내고, 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표현하는 것을 보냈는데 작업한다고 가식을 떠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제 관계를 기록하는 것보다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지역 사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건축 구역에 살고 있는 여러 정체성을 상상하면서 그분을 어떤 식으로 호명할 수 있을까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화환을 보내기로 한거죠. 사진을 보시면 세입자, 집주인, 조합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주민, 임시정주자, 세대원, 주민 이런 식으로 재개발과 관련짓지 않는 방식으로 수신자를 호명했고, 꽃바구니 안에는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저 자신을 5년째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자 작가인데, 당신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기보다는 당신한테 꼭 부합하는 호칭이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다면 해당 화환을 수령해 달라고 썼어요. 제가 5일 후에 다시 찾아갈 테니 수령을 원치 않을 때는 문밖에 다시 놔달라고 편지를 쓰고 갖다 놓았습니다.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면서도, 저 나름의 규칙은 있었어요. 조합 관련 공지가 붙어있어요. 재건축에 관련해서 표식이 붙어있는 집 앞에 둔 적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면 왼쪽은 재건축 경계 안이에요. 오른쪽은 경계 밖이거든요. 사실 보면 노후화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한 골목을 두고 좌우가 미래가 다르다는 게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기다 두면 경계 밖의 사람들도 보겠구나” 생각해서 놓은 적도 있고, 이곳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라 이곳에도 놔봤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 다른 호칭을 써서 꽃다발을 두고 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했어요. 농자마자 건물 관리인이 저를 목격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뭐하는지 물었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깐 길에서 종교를 포교하는 사기꾼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냐고 묻는데 제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나 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

있고요. 일부는 받으신 일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초인종을 눌러서 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5 일 후에 직접 수령 여부를 여쭙어본 분도 꽤 있어요. 수령 여부에 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호명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앞에만 있어서 이상하다거나 제가 쓴 편지가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거나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미술 작업의 일환으로 보낸 것이지만 철거민 연합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어요. 주민들은 이걸 보고 어떤 긴장감을 느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의 두 가지 작업은 저와 같은 경계 속에 사는 주민 간의 관계를 맺어보는 시도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저와 그분들의 관계도 있지만, 그분들 사이의 더욱 다양한 관계가 있고, 작가가 매개자로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경계를 마주 보고 사는 사람들의 <경계 표시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지도에 보이는 빨간 선이 저희 동네 재건축 경계인데요. 저기 보면 아현동과 공덕동이 섞여 있어요. 사업이 진행된다면 행정구역도 개편됩니다. 빨간 라인은 주택 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선인데,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 분들에게 경계를 기념하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 초대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경우의 수는 네 가지예요. 이 경계에 참여하실 의향이 양쪽 다 있으면 의자가 두 개가 다 바로 서 있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물건을 주시면 그것을 그 위에 올려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것이예요. 양쪽 다 원하지 않을 때는 의자가 두 개 다 뒤집혀 있고, 한쪽만 원하면 한쪽만 엮어놓고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참여해달라고 설득할 마음이 없었어요. 양쪽 다 거부하는 것도 그 나름의 지역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 애를 쓰지는 않았습시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어린이집이고 오른쪽은 오토바이 가게인데 양쪽 다 참여를 원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메는 가방과 오토바이를 기록하고 싶다고 하셔서 찍었어요. 피자가게랑 문방구는 양쪽 다 원치 않으셔서 엮어놓은 상태로 기록을 하었어요. 왼쪽은 봉제작업소이고 오른쪽은 실을 파는 도매상인데요. 저기 같은 경우는 그날 만든 옷 문치를 제공해주시고, 오른쪽은 실을 제공해주셔서 그렇게 사진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급창집이랑 철물점은 양쪽 다 원하지 않으셔서 뒤집어서 기록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왼쪽은 출판사고 오른쪽은 미용실인데 왼쪽에서 20년 동안 경비를 스신 분이랑 오른쪽은 12년 동안 머리를 자르시는 미용사분이 참여하셨는데, 제가 곤란했던 것은 처음에는 흔쾌히 수락하셨는데, 두 번째에 가면 마음이 바뀐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집주인도 아닌데 이걸 굳이 해야 하는지 부담스럽다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제가 그것을 설득할 입장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미용사분께서 그래도 같이 하자하고 설득해주셔서 기록이 한 경우고요. 양쪽 다 서 있는 경우, 양쪽 다 누워있는 일도 있지만, 시트지로 붙여놓은 경우(한쪽만 참여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사고 실험을 할 때는 가능한 경우의 수였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물어봤을 때 한쪽은 참여할 의향이 있고 한쪽은 의향이 없는 경우 다시 찾아가 얘기를 드리면 섭섭해서 마음을 바꾼 일도 있어요. 나는 원했는데 상대가 원치 않았을 때 “그럼 나도 안 할래”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 중에 “저쪽에 한 번 다시 물어봐 주세요” 그런 경



우도 있어요. 아니면 “저 집의 옆집이랑 하면 안 돼요”하는 경우일 때 제가 중재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난감했는데 오른쪽 한옥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사시지만, 왼쪽에도 한옥인데 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쪽방이 7개가 있고 일곱 가구가 있는 건데 그럼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제가 고민할 부분이고요. 제가 최근에 처음에 시작했던 관계에서 뭐가 변했을까 생각하면서 관계망을 업데이트를 해봤어요. 저기 kk커트가 보이시나요. 아까 화분을 두고 참여해주신 분인데 저를 다른 분에게 소개해 주셔서 저는 공덕동 마을 계획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즘 쓰레기도 줌고 다니는 ‘동네가꾸미’ 있잖아요. 그런 활동을 열떨결에 하게 되었는데 저로서는 어떤 관계가 생겨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문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요. 사회적 측면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집단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의 성격도 있지만, 개인으로 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환경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같은 경우에 개인의 실천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목소리를 냈을 때 가지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집단적 행동이기 이전에 개인의 실천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고 접근했고, 한편으로는 현대미술과도 관련되는 여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현대미술에서 대상과 작가의 관계, 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작가가 지역의 문제를 다룰 때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작가가 갖는 대표성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함, 차이성을 없애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재현되지 않은 위치, 관계에 집중해보고 싶었어요. 반대로 작가가 다루는 지역과 멀리 있을 때 그것이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 ‘거리 두기’가 객관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통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이 아니기에 관련 이슈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수공이 가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하거든요. 거리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작업하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고민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주제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제가 흥미롭게 들었던 수업의 영향도 있어요. 그 수업의 제목은 ‘The place from which one speaks’입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말할 때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다루었던 글 중에서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말하는 주체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경제학에 의하면 경제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의학에 의하면 환자나 정상인이 되는 것이고, 생물학에 의하면 다른 주체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위치가 주어집니다. 재개발 이슈를 다룰 때는 경제적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외의 주체 되기라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했었고, 다양한 위치가 가능해질 때 오히려 더 공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관객 : 주민들께서 전시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황귀영 : 동네 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오실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답답해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월요일만 시간이 되신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산에 사시는데 직장은 공덕동이지만 너무 멀다고 하시고요. 의견을 수렴한 다음 저희 집에 초대했더니 그건 흔쾌히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이사 나가기 전에 일이 주일 정도 집에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전시할 생각입니다.

관객 : <경계 프로젝트>에서 미용사분이 경비아저씨를 어떻게 설득한 거죠?

황귀영 : 일단 오해를 풀었고요. 경비아저씨께서는 제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미용사분께서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참여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당신을 보여주는 오브제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랑 같이하면 나중에 기억하고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서로 잘 알고 지내시는 사이거든요. 그렇게 설득을 하셨어요.

관객 : 영상에서 스프레이로 뿌리고 다니시는데 어떤 퍼포먼스인지 설명해 주세요.

황귀영 : 인트로 영상처럼 보이는 작품 <공덕동 뉴스>인데요. 그건 제가 여기에 있는 작업화된 것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행동을 제안하는 영상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낙서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작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아직 이주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저런 표식이 있더라고요. 저로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서 뿌리고 다녀봤어요. 그런데 혼란 적도 있어요. 저게 색이 없는 스프레이이긴 한데 보시고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시면 저도 당황하긴 했는데 색깔 없는 거라고 대답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었나 다시 보게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관객 : 왜 색깔 없는 스프레이로 하셨어요?

황귀영 : 제가 뭔가를 그릴 이유는 없었어요.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행위가 어떤 느낌인지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저게 사실 색깔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야광이거든요. 밤에 저같이 재건축 관계에 없는 사람의 표시도 밤에는 살짝 보이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했는데, 세계 하기에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뿌렸어요.

관객 : 저 지도안에 재개발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마주 보고 있는 개인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나요?

황귀영 : 한가지 기준은 제가 참여자를 개인 대 개인으로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단독주택이거나 가게의 경우에는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분께 물어보기가 쉬웠어요. 반대로 다가구 주택이거나 빌라는 그 설정이 어려웠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도 했습니다. 노크해도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제외했구요.

관객 : 아파트 위에 현수막 작업도, 미국에서 본 많은 그래피티도, 누군가가 어떤 종류로든 자신만의 표현을 해냈지만, 실질적인 수취인은 불분명하잖아요. 그 현수막 작업도 사실 누가 그걸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피 칼(Sophie Calle)의 작업처럼 익명의 누군가를 위해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받는 이에 대해 기록은 하지 않으셨나요?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황귀영 :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다는 느낌이 있어서 기록하지 않았고, 꽃다발도 구체적인 대화나 반응보다는 이미지로서 남겨진 게 객관성이 다른 것 같아서 내버려 두었어요. 반응이라는 것은 매개자가 되었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주민 간의 관계는 사실상 대화가 아니었어요. 일방적 소통이었죠. 사실 작업화되지 않은 대화는 있었어요.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기자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런 방식의 소통은 이 작업에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서 제외했어요.

관객 : 화환의 양식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식은 아닌 것 같은데, 특정한 어떤 양식을 선택한 게 작가 본인의 취향인지 궁금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예측하고 꽃꽂이를 직업 하신 건가요? 저런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황귀영 :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꽃꽂이를 배우긴 했어요. 사실 제 취향이랑은 안 맞아요. 제 취향대로 하면 수수한 꽃다발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유지하고 싶었던 재개발이라는 문맥이 흐려지고, 개인의 꽃다발이 되는 것 같아서 고민했어요. 저 뒤에 빠죽한 게 화환의 재료지 꽃바구니의 재료는 아닌데 그거랑 애인이나 친구한테 보내는 꽃다발의 형식을 조합해서 중간의 형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제가 봐도 예쁘지는 않아요. 하이브리드 정도로 생각하고 제작했어요.

관객 : 이 작업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지역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도 반영이 되어서 다른 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황귀영 : 그럴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녜요. 사실 그저께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지역에 다른 변화가 생길 것이고, 같이 작업한 분들도 떠나겠죠. 나중에 가림막이 생길 테고요. 경계 밖에 계셨던 분인데, 무미건조한 가림막보다 기록이 거기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파생되는 다른 작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객 : 정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황귀영 : 계속 관리하다가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유학 가기 직전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종료가 되었어요.

관객 :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설치나 퍼포먼스로 관계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제목

이 <협상불가능한 관계들>이잖아요.

황귀영 : 비관적인 제목이긴 하죠. 저도 그 사이에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처음에 사실 제목은 ‘협상 중인 관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출발점에서부터 이분들은 어떤 종류의 협상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외의 것을 다루고자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들릴지라도 제 관점이 전달될 것으로 생각해서 중간에 제목을 바꿨어요.

김인선 : 이상으로 토크를 마칩니다.